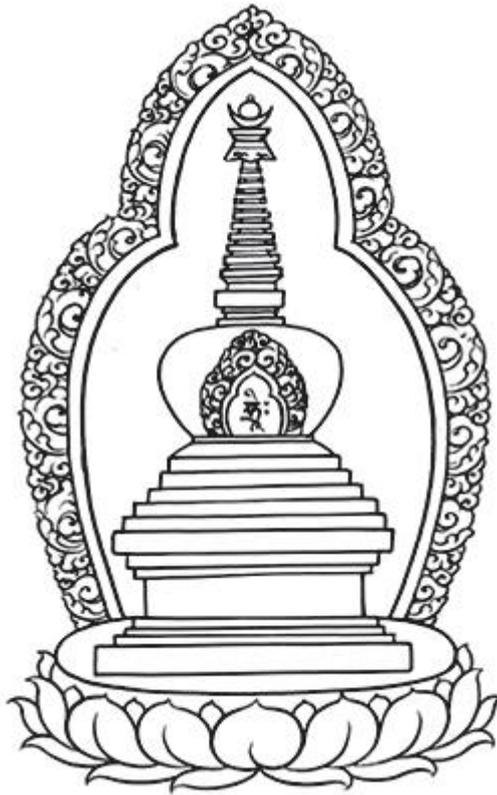


티베트어 한글 표기안



ཨ་ཕོ་དྲུ་བཀའ་བསྟན་ཉམས་ཞིབ་བསྟོ་གནས་ཁང་།

티베트장경연구소

The Research Center for Tibetan Buddhist Canon

‘티벳어 한글 표기안’을 발간하면서

티벳어는 히말라야 산맥을 포함하는 티벳고원(Tibetan Plateau), 파키스탄 북동부의 발티스탄(Baltistan) 지역과 인도 최북단의 라닥(Ladakh), 히말라야 산맥 남쪽의 네팔(Nepal)과 시킴(Sikkim)과 부탄(Bhutan), 그리고 동장(東藏)이라고 불리는 중국의 쓰촨(四川)과 칭하이(靑海) 등지에 거주하는 티벳인들이 사용하는 언어다. 언어학적으로 분류하면 넓게는 중국어를 포함하는 시노-티벳어(Sino-Tibetan) 족에 속하며, 세분하면 이 가운데 티벳-버마어(Tibeto-Burman)족에 속한다. 지역에 따라 라싸(Lhasa), 캄(Kham), 암도(Amdo), 라닥(Ladakh)의 언어가 다른데 티벳의 수도인 라싸의 언어가 표준어로 사용된다.



7세기 중엽 송첸감보(Srong Tsan sGam Po: 569~649) 왕의 명령으로 인도에 파견되었던 툐미 삼보따(Thonmi Sambhota)는 카슈미르(Kashmir) 지역의 문자에 토대를 두고 티벳문자를 만들었다. 티벳문자는 표음문자로 ‘아’ 발음이 내재하는 30개의 기본자음과 ‘이, 우, 에, 오’ 로 발음되는 4개의 모음부호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문자 가운데 고려 시대에 원나라를 통해 들어온 파스파 문자가 티벳문자의 변형에 다름 아니다. 또 한역불전에서 다라니 등

산스크리트어를 표기하던 실담자(悉曇字: Siddham)의 모양이 티벳 문자와 유사하다. 티벳어는 한글과 마찬가지로 음절 단위로 표기 하는데 하나의 음절을 표기할 때 최소 하나의 자음에서 최대 일곱 개의 글자까지 사용되며 지역에 따라 음절을 읽는 방법이 다르다. 음절의 구성요소 가운데 기본자(초성)와 후접자(받침)를 제외한 대부분의 자음은 묵음이지만 라닥의 방언에서는 이 모두를 드러내어 발음하기도 한다. 본 '티벳어 한글 표기안'은 표준어인 중앙티벳어, 즉 라싸어의 발음에 토대를 둔다.

이상적인 '티벳어 한글 표기안'이 되려면 '외래어 한글 표기법'을 준수하면서, 표기에 일관성이 있어야 하고, 발음 역시 원음에 가까워야 하며, 한글표기만을 보고서도 원래의 티벳어를 복원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티벳문자와 한글의 자음과 모음의 개수와 발음의 차이, 서구의 언어 가운데 특히 영어를 주 대상으로 삼아 제정되었던 '외래어 한글 표기법'의 한계 등으로 인해서 이런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표기법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 본 '티벳어 한글 표기안'에서는 이 가운데 '표기의 일관성'을 가장 중시하였다. 본 표기안을 준수할 경우, 인명이나 지명 등 고유 명사를 포함하여 티벳어를 한글로 음사하고자 할 때 원음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 누구나 동일한 한글표기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티벳어는 물론이고 산스크리트어와 빠알리어 등 불교 고전어를 한글로 표기할 때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이들 언어의 '로마자 표기법'이 그에 대한 영어식 발음과 무관한 순수한 '발음기호'라는 점이다. 예를 들어 산스크리트어나 티벳어의 로마자 표기인 'ka, ca, ta, pa'의 영어식 발음은 '카, 싸(또는 카), 타, 파'이겠지만 올바른 음가(音價)는 '까, 짜, 따, 빠'이다. 'ca'의 경우 'cease(씨즈)'나 'car(카)'

에서 보듯이 영어식 발음으로는 '싸'나 '카'가 되어야 하겠지만 발음 기호에서는 반드시 '짜'라고 읽어야 한다. 티벳어를 포함한 불교 고전어에 대한 '로마자 발음기호'를 영어식으로 발음하는 우(愚)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지난 3월 3일 경주 동국대의 티벳장경연구소에서 '티벳어 한글 표기안'을 만들기 위한 회의가 열렸다. 티벳 스님으로는 본 연구원의 땀진 남카 스님과 부산의 한국-티벳센터 주지 쇠남 겔첸 스님이 동참하셨다. 두 스님 모두 한국어에 능통하실 뿐만 아니라 불교에 대한 최고의 학식을 갖춘 하람빠 게셰이다. 한국인 전문가로는 본 연구원 전문연구원인 최연철 박사님과 객원 연구원인 박은정 선생님이 동참하셨다. 최연철 박사님은 인도 델리의 국립 박물관연구소에서 티벳 밀교 무상요가 깔라짜끄라 띠뜨라 의궤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후 『입보리행론역주』와 저서 『티벳불교의 향기』를 출간한 바 있는 티벳불교 전문학자 이시며 박은정 선생님은 티벳어와 티벳불전에 정통한 분으로 다람살라의 티벳승가 대학에서 7년간의 반야사상 과정을 마치고 현재 중관철학 과정을 밟으면서 달라이라마 존자님의 통역을 담당하고 계시다.

이 이외에 대학원에 재학하면서 티벳불교를 전공하는 대연 스님과 강남옥 선생님 등 두 분의 연구조교, 그리고 티벳어 폰트와 키보드에 정통한 조영수 선생님이 함께 하셨다. 외래어 한글 표기법을 숙지한 상태에서 티벳 스님들의 발음을 들으면서 티벳어의 자음과 모음, 그리고 변음의 표기안을 하나하나 신중하게 결정하였다. 회의 결과에 토대를 두고서 최연철 박사님이 티벳어 발음과 관련한 나머지 규칙들을 취합하여 정리해 주셨고 대연 스님이 최종 편집을 담당하셨다. 앞으로 티벳장경연구소에서 제작, 발간할 모든 문서에서는 본 표기안을 사용할 예정이다.

티벳불교를 연구하는 한국의 다른 모든 학자들에게도 본 표기안이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달라이라마 존자님의 지원금을 계기로 불기 2553년⁽²⁰⁰⁹⁾ 11월 6일 동국대 경주캠퍼스에 티벳장경연구소가 설립되었고 12월 9일 개원식을 가졌다. 학교 측의 도움으로 훌륭한 연구공간과 기본적인 사무용 가구를 마련할 수 있었고, 티벳불교를 외호하는 많은 분들의 후원으로 컴퓨터 등 사무집기와 참고도서를 구입할 수 있었다. 본 연구소의 첫 성과물인 이 소책자 말미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존함을 적어 그 공덕을 기리고자 한다.

불기 2554년⁽²⁰¹⁰⁾ 5월 3일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티벳장경연구소장 김성철 합장

❖ 목 차 ❖

1. 티벳어 음운론(音韻論)	7
1) 자음	7
2) 모음	7
2. 티벳어 한글표기	10
1) 자음	10
2) 모음	11
3) 유두자(有頭[冠]字)	14
① ཨ་ 유두자	14
② ཨི་ 유두자	15
③ ཨེ་ 유두자	15
4) 첨족자(添足字)	16
① ཨྲ་ 첨족자	16
② ཨླ་ 첨족자	17
③ ཨྵ་ 첨족자	18
④ ཨྷ་ 첨족자	19
5) 전접자(前接字)	19
6) 후접자(後接字)	20
7) 재접자(再接字)	21
8) 불규칙 발음 표기	22
3. 티벳어화된 범어표기	24
예시	26
부록 : 티벳어 한글 표기안을 따른 음절 표기의 실례	29

1. 티벳어 음운론(音韻論)

티벳 문자는 30개의 기본자음(གསལ་བྱེད་)과 4개의 기본모음(དབྱེད་མ་)으로 구성되어 있다.

1) 자음

ཀ་	ཁ་	ག་	ང་	ཅ་	ཆ་	ཇ་	ཉ་
ka	kha	ga	nga	ca	cha	ja	nya
ཏ་	ཐ་	ད་	ན་	པ་	ཕ་	བ་	མ་
ta	tha	da	na	pa	pha	ba	ma
ཅ་	ཆ་	ཇ་	མ་	ཞ་	ཟ་	འ་	ཡ་
tsa	tsha	dza	wa	zha	za	a	ya
ར་	ལ་	ཤ་	ས་	ཧ་	ཨ་		
ra	la	sha	sa	ha	a		

2) 모음

ཨི་ i ཨུ་ u ཨེ་ e ཨོ་ o

하나의 음절을 나타낼 때 하나의 문자만 사용하기도 하지만
많게는 모음 기호를 포함하여 일곱 개의 문자를 사용하기도 한다.
하나의 음절을 이루는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다.¹

¹ 이 중에서 특히 앞뒤로 붙는 글자들을 유접자(有接字, འདུལ་ཅན་)라고 한다.

- ① 기본자(མིང་གཞི་)
- ② 모음기호(ི་= གིགུ/ ུ་= འབས་ཀྱུ་ / ེ་= འགྲང་བུ/ ེོ་= ལྷ་རོ་)
- ③ 전접자(前接字, ལྷོན་འདུག་)
- ④ 유두자(有頭[冠]字, མགོ་ཅན་)
- ⑤ 첨족자(添足字, འདོགས་ཅན་)
- ⑥ 후접자(後接字, རྗེས་འདུག་)
- ⑦ 재접자(再[後]接字, ཡང་འདུག་)

티벳어 자음에는 기본모음 <ㅏ>자가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의 자음들은 기본 모음 <ㅏ>를 넣어서 발음한다. 전접자, 유두자, 첨족자, 후접자, 재접자는 모두 자음이지만 하나의 음절에서 실제로 발음하는 부분은 모음기호가 붙어있는 기본자(초성)와 일부의 후접자(받침)뿐이다. 한 음절의 구성요소 각각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① 30개의 자음은 모두 잠재적인 기본자이다.
- ② 30개의 자음과 4개의 모음기호에는 기본적으로 모자음(母字音) <ㅏ(ཨ་ཚེ་)>가 들어있다.
- ③ 전접자로 사용할 수 있는 글자는 < ག་ད་བ་མ་འ་ >의 다섯 가지이다.
- ④ 유두자로는 < ར་ལ་ས་ >의 세 가지 글자를 사용한다.
- ⑤ 첨족자로는 < ུ་ུ་ལྷ་ུ་ >의 네 가지 글자를 사용한다.

- ⑥ 후접자로 사용되는 글자는 <ཀ་ད་ན་ཀ་བ་མ་འ་ར་ལ་ས>의 열 가지이다.
- ⑦ 재접자로 사용되는 글자는 <ད་ས>의 두 가지이다.

기본자는 사전 등에서 어휘의 순서를 매길 때 그대로 적용되는 음절 단위이다.

- 거의 대부분²의 음절에서 기본자를 제일 먼저 발음한다.
- 기본자보다 전접자와 유두자를 앞에 쓰지만 전접자나 유두자를 먼저 발음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 유두자와 첨족자 그리고 네 가지 모음기호는 기본자에만 붙는다.

이와 같이 한 음절 안에 여러 글자가 모여 있어도 실제 발음되는 부분은 기본자를 중심으로 한 부분이다. 따라서 티벳어의 기본 발음은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고 할 수 있다.³

- 기본자로 배치된 주된 자음소리
- 기본자에 붙어 있는 하나의 모음소리
- 기본자에 이어 쓰는 후접자의 받침소리

² ㄱ'는 예외적으로 유두자ㄱ'가 먼저 발음되고 기본자인ㄱ'가 발음된다. 실제발음은 [라]와 [하]를 빨리 발음한 소리가 난다.

³ 인도 서북부의 라닥 지방과 같은 티벳어 문화권 일부에서는 드물게 전접자와 유접자를 모두 발음하는 경우도 있다.

2. 티벳어 한글 표기⁴

1) 자음

ཀ་	ཁ་	ག་	ང་	ཅ་	ཆ་	ཇ་ ⁵	ཉ་
[까]	[카]	[가]	[응아]	[짜]	[차]	[자]	[냐]
ka	kha	ga	nga	ca	cha	ja	nya
ཏ་	ཐ་	ད་	ན་	པ་	ཕ་	བ་	མ་
[따]	[타]	[다]	[나]	[빠]	[파]	[바]	[마]
ta	tha	da	na	pa	pha	ba	ma
ཅ་	ཆ་	ཇ་	མ་	ཉ་	ཐ་	འ་ ⁶	ཡ་
[짜]	[차]	[자]	[와]	[샤]	[사]	[아]	[야]
tsa	tsha	dza	wa	zha	za	'a	ya
ར་ ⁷	ལ་ ⁸	ཤ་	ས་	ཏ་	ཨ་		
[라]	[라]	[샤]	[싸]	[하]	[아]		
ra	la	sha	sa	ha	a		

⁴ 티벳어 한글 표기법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한다. 첫번째, 티벳어의 지명이나 고유명사 등을 한글로 변환할 때 발생하는 표기방식의 혼란을 바로잡기 위한 규칙이다. 두번째, 티벳어 발음과 유사한 한글 발음을 표기함으로써 실제 발음과 가깝게 하려는 교육적 의미를 갖는다. 세번째, 티벳어 철자를 한글로 표기하기 위한 것(transliteration)으로 티벳어로 복원이 가능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본 티벳어 한글 표기법은 첫번째 규정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으며 두번째, 세번째 규정은 차후 제정하기로 한다.

실제 한글로 티벳어의 전접자나 후접자 유관자 등을 모두 표기할 수 있는 철자표기법은 구현하기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학계에서 통용되는 와일리식(Wylie system) 표기법(Turrell Wylie, "A Standard System of Tibetan Transcription," Harvard Journal of Asiatic Studies 22 [1959]:pp. 261-67)을 사용하기로 한다. 이와 함께 기본자 부분을 대문자로 사용하기도 하며 최근에는 성조(聲調)를 표기하기 위해 발음자 위아래에 [-]기호를 넣어 표기하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은 표기법들은 모두 원음에 가까운 표기법을 사용하기 위한 학자들의 노력에 따른 것이다.

⁵ ཅ་ ཆ་ ཇ་는 ‘짜, 차, 자’로 표기하는 것이 원래 발음에 가까우나 외래어 한글표기법 중 파찰음의 표기 규칙과 어긋나기에 위와 같이 ‘짜, 차, 자’로 표기하기로 한다.

⁶ འ་ 와 ཨ་는 실제 티벳어 발음에서 약간의 성조 차이를 보이지만 표기는 모두 [아]로 한다.

⁷ 기본자로 사용하는 ར་자는 영어의 Ra 발음에 해당한다.

⁸ 기본자로 사용하는 ལ་자는 영어의 La 발음에 해당한다.

2) 모음

ཨ་ [이] i ཨུ་ [우] u ཨེ་ [에] e ཨོ་ [오] o

기본모음(=모자음母字音)인 <ㅏ>는 발음 그대로 [아]로 발음 된다. 그러나 자음에 모음이 붙는 경우, 기본모음 <ㅏ>를 뺀 모음가(母音價)를 적용하여 발음한다. 표기법도 이와 같이 한다.

예시)

ཀ་ [까] ཀི་ [끼] ཀ་ [차] ཀུ་ [추] ཀ་ [냐] ཀེ་ [네] ཀ་ [마] ཀོ་ [모]

후접자 <ད་ ར་ ལ་ ས་>가 붙는 경우 기본자의 모음 발음에 변화가 일어난다. 후접자에 의해 변화된 모음의 발음을 한글로 그대로 구현하기 불가능하기 때문에 비슷한 음가를 적용하여 [아]는 [애]로, [우]는 [위]로 [오]는 [외]로 표기하기로 한다. [이]와 [에]는 발음 변화가 없기에 그대로 사용한다.

예시)

ངལ་གསོ་ [응앨쏘] ཚོས་ [최] གལ་ཆེན་པོ་ [겔첸뽀] ལུལ་ [첼] དོན་ [뉘]

[아]가 변화되는 경우, ེ[에]가 쓰이는 경우와 구분하기 위해 [애]를 사용하도록 한다.

예시)

ཐལ་ཚ་ [탈차] ཐེག་པ་ [텍빠] ཐན་ [팬] ཐེབས་ [펍] ཐས་ [래]

* 복모음(複母音)⁹이 쓰인 경우에는 별도의 규칙을 적용한다. 복모음이 쓰이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① 자음에서 <ㅈ>음가가 포함된 <ᄃ ᄃᄃ ᄃᄃ ᄃᄃ>

② ᄃᄃ첨족자가 붙은 글자¹⁰

<ㅈ>음가가 포함된 복모음에 후접자 <ᄃ ᄃᄃ ᄃᄃ ᄃᄃ>가 쓰이면 모음이 변화된다. 기본모음만 가지는 음절은 <ㅈ>모음가를 포함한 모음변화를 적용하여 [애]로 표기한다. 모음 <ㅣ>가 쓰이는 경우는 <ㅈ>음가가 적용되지 않고 후접자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지 않기에 그대로 [이]를 사용한다. 모음 <ㅞ>가 쓰이는 경우도 후접자의 영향을 받지 않기에 <ㅈ>음가만 적용시켜 [예]로 표기한다.

모음 <ㅙ>나 <ㅚ>가 올 경우는 변화된 모음 표기가 불가능하므로 예외적으로 후접자에 의한 모음변화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다.

예시)

ᄃᄃᄃ [널] ᄃᄃᄃᄃ [널] ᄃᄃᄃᄃ [쌍] ᄃᄃᄃᄃ [쌍] ᄃᄃᄃᄃ [손] ᄃᄃᄃᄃ [울]

③ 기본자가 [와]로 발음되는 경우, 즉 자음 ᄃᄃ와 전접자 ᄃᄃ에

ᄃᄃ가 기본자로 쓰이는 ᄃᄃᄃ의 경우

⁹ 티벳어에는 복모음의 개념이 없지만, 한글표기에서 한글의 겹소리(複音)에 해당하기에 이와 같은 단어를 사용한다.

¹⁰ 이에 대해서는 ᄃᄃ첨족자 항목에서 자세히 설명할 것이다.

기본모음만 가지는 음절은 그대로 [와]로 표기한다. 모음 <ㅣ>가 쓰이는 경우는 [위]로, 모음 <ㅕ>가 쓰이는 경우는 [웨]로 표기한다. 모음 <ㅓ>나 <ㅜ>가 쓰이는 경우는 변화된 발음을 한글로 표기하기가 불가능 하기 때문에 기본발음 [와]에서 자음 <ㅇ>만을 적용시켜 [우]와 [오]로 표기한다.

예시)

དབང་ [왕] རྗེ་ན་ [위나] ལྷུང་ [웅] རྗེར་མ་ [웨르마] རྗེར་ག་ [오르가]

<ㅓ>음가가 포함된 복모음에 후접자 <ད་ན་ལ་ས་>가 쓰이면 모음이 변화된다. 기본모음만 가지는 음절은 후접자에 의한 변화음을 적용시켜 [왜]로 표기가 가능하다. 모음 <ㅣ>나 <ㅕ>는 후접자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기에 [위]와 [웨]를 그대로 사용한다.

모음 <ㅓ>나 <ㅜ>가 쓰이는 경우는 기본발음 [와]에서 자음 <ㅇ>만을 적용시켜 [위]와 [외]로 표기한다. [위]의 경우 앞서 살펴본 <ㅓ>에 모음 <ㅣ>가 적용된 경우의 표기법과 같아지지만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기로 한다.

예시)

དབལ་ [웰] དབན་ [웬] དབེན་ [웬] རྗེ་ [위] དབུས་ [위] དབོན་ [웬]

기본자 다음에 རི་가 올 경우는 기본자의 모음가에 རི་[이]를 더하여 표기하도록 한다.

예시)

ངའི་ 응아 + 이 = [응애] ལྷའི་ 쉰 + 이 = [쉰]
 མོའི་ 모 + 이 = [모이] དེའི་ 데 + 이 = [데이]
 བའི་¹¹ 와 + 이 = [왜]

3) 유두자 (有頭[冠]字, མགོ་ཅན་)

기본자의 발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① ར་유두자 12개

ཀ་	ག་	ང་	ར་	ལ་	ཏ་
[까]	[가]	[응아]	[자]	[냐]	[따]
ད་	ན་	བ་	མ་	ཅ་	ཇ་
[다]	[나]	[바]	[마]	[짜]	[자]

예시)

ཀུ་མ་ [꾸마]	དགོ་གཞ་ [게겐]	རམ་ཅན་ [응암젠]	རེས་མ་ [제마]
ལྷོང་པ་ [닝빠]	ལྷོག་པ་ [똑빠]	དོ་ལྷོ་ [도토]	ནམ་ལྷོག་ [남똑]
བབ་ལུ་ [밥추]	མོ་མ་ [모마]	བཙེ་དུང་ [쩌둥]	རྩི་གསང་ [지쌍]

¹¹ བ་ 는 བ་ 뿐만이 아니라 བོ་ 를 나타내기도 한다. 따라서 발음을 [바]로 할지 [와]로 할지는 정해져 있지 않으며 각 단어에 따라 달라진다.

② ㅅ 유두자 10개

ᄃᆞᆫ	ᄃᆞᆫ	ᄃᆞᆫ	ᄃᆞᆫ	ᄃᆞᆫ	ᄃᆞᆫ
[까]	[가]	[응아]	[짜]	[자]	[따]
ᄃᆞᆫ	ᄃᆞᆫ	ᄃᆞᆫ	ᄃᆞᆫ ¹²		
[다]	[빠]	[바]	[하]		

예시)

ᄃᆞᆫᄃᆞᆫᄃᆞᆫ	ᄃᆞᆫᄃᆞᆫᄃᆞᆫ	ᄃᆞᆫᄃᆞᆫ	ᄃᆞᆫ
[꼭땀]	[꼭빠]	[강슈]	[응아]
ᄃᆞᆫᄃᆞᆫᄃᆞᆫ	ᄃᆞᆫᄃᆞᆫ	ᄃᆞᆫᄃᆞᆫ	ᄃᆞᆫᄃᆞᆫ
[짜포리]	[제차]	[장탕]	[또채]
ᄃᆞᆫᄃᆞᆫᄃᆞᆫ	ᄃᆞᆫᄃᆞᆫᄃᆞᆫ	ᄃᆞᆫᄃᆞᆫ	ᄃᆞᆫᄃᆞᆫ
[독빠]	[뺨빠]	[바내]	[하강]

③ ㅆ 유두자 11개

ᄃᆞᆫ	ᄃᆞᆫ	ᄃᆞᆫ	ᄃᆞᆫ	ᄃᆞᆫ	ᄃᆞᆫ
[까]	[가]	[응아]	[냐]	[따]	[다]
ᄃᆞᆫ	ᄃᆞᆫ	ᄃᆞᆫ	ᄃᆞᆫ	ᄃᆞᆫ	
[나]	[빠]	[바]	[마]	[짜]	

예시)

ᄃᆞᆫᄃᆞᆫᄃᆞᆫ	ᄃᆞᆫᄃᆞᆫ	ᄃᆞᆫᄃᆞᆫᄃᆞᆫ	ᄃᆞᆫᄃᆞᆫ
[까르마]	[강]	[응아랍]	[낸뽀]
ᄃᆞᆫᄃᆞᆫᄃᆞᆫ	ᄃᆞᆫᄃᆞᆫ	ᄃᆞᆫᄃᆞᆫᄃᆞᆫ	ᄃᆞᆫᄃᆞᆫᄃᆞᆫ
[뚝뽀]	[뵤]	[뽀까]	[비락]
ᄃᆞᆫᄃᆞᆫ	ᄃᆞᆫᄃᆞᆫᄃᆞᆫ	ᄃᆞᆫᄃᆞᆫ	ᄃᆞᆫᄃᆞᆫ
[맨]	[뽀랑]	[쫄]	[쫄]

¹² 실제발음은 [라]와 [하]를 빨리 발음한 듯한 소리가 나지만 한글표기가 불가능하기에 본 표기안에선 [하]로 표기한다.

4) 첨족자 (添足字, འདོགས་ཅན་)

① ཡ་첨족자 8 개

ཀ་	ཁ་	ག་	པ་	ཕ་	བ་
[까]	[카]	[가]	[짜]	[차]	[자]
མ་	ཙ་				
[냐]	[하]				

ཀ་ + ཡ་ = ཀ་ + ཡ་ = [까]와 같이 기본자음에 모음 <ㅏ>가 결합되어 발음된다. ‘까 카 가 하’의 경우는 기본음가 그대로 적용되지만, <ཕ་ བ་ མ་ ཙ་>는 발음이 변화된다. 실제 변화된 티벳어 발음은 한글로 구현하기 불가능 하기에 비슷한 음가를 적용하여 각각 [짜], [차], [자], [냐]로 표기한다.

ཡ་첨족자에 모음이 쓰일 경우 기본적으로 <ㅏ>모음가를 포함한 모음변화를 적용하여 표기한다. 모음 <ㅣ>가 올 경우에는 [야]모음이 적용되지 않기에 [이]를 그대로 사용한다. 모음<ㅓ>가 올 경우는 [예]로, 모음 <ㅜ>가 올 경우는 [유]로, 모음 <ㅡ>가 올 경우는 [요]로 표기한다.

예시)

ཀྱང་ [강]	སྐྱོབ་གསོ་ [포쏘]	ཁྱིམ་ [침]	ཁྱོག་པོ་ [꼭뽀]
འགྱིས་ [기]	ཐྱ་གར་ [가가르]	ཐྱང་གི་ [짱끼]	ཕྱག་དེབ་ [착텅]
བྱང་ལྗུབ་ [장츨]	བྱེ་ཐང་ [제탕]	ལྷུ་གུ་ [뉴구]	ལྷོང་ [롱]

하지만 후접자 <ད་ན་ལ་ས་> 가 붙는 경우는 앞에서 살펴본 복모음의 별도의 규칙을 다시 적용한다. 기본모음만 가지는 음절은 <ㅏ>모음가를 포함한 모음변화를 적용하여 [애]로 표기한다.

모음 <ㅣ>나 <ㅔ>는 후접자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와 [예]를 그대로 사용하고, 모음 <ㅑ>나 <ㅓ>가 올 경우는 한글 표기의 한계로 인해 모음변화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다.

예시)

དཀུས་ ^[꺄]	ཁྱིན་ ^[꺆]	མཁྱེན་ ^[꺇]	ཁྱིས་ ^[기]
ཁྱིན་ཅས་ ^[꺆채]	ཁྱལ་པོ་ ^[꺆뽕]	ཁྱུན་ ^[꺈]	ཁྱུས་ ^[꺈]

예외로 전접자 ད་ 다음에 འ་가 오면 [야]발음이 된다. 이 경우도 위와 같은 표기 규칙을 적용한다.

예시)

དབྱངས་ཅན་མ་ ^[양꺆마]	དབྱར་ཁང་ ^[야르꺈]	དབྱར་ཁྱི་མ་ ^[야르치마]	
དཁྱིན་ ^[인]	དབྱུང་བ་ ^[용와]	དཁྱེ་བ་ ^[예와]	དཁྱེས་ ^[예]

② ར་첨족자 13개

기본자의 발음을 변화시킨다.¹³ 실제 티벳어 발음은 한글로 구현하기 불가능 하기에 비슷한 음가를 적용하여 표기하기로 한다.

¹³ 전체적으로 영어의 R 발음이 약간씩 들어 있다.

ཁ་ [따]	ཁ་ [타]	ག་ [다]	ག་ [따]	ཁ་ [타]	ཁ་ [다]
--------	--------	--------	--------	--------	--------

ཁ་ [나]	ཁ་ [따]	ཁ་ [타]	ག་ [다]	ཁ་ [마]	ཁ་ [싸]	ཁ་ [하]
--------	--------	--------	--------	--------	--------	--------

예시)

བཀ་ཤིས་ [따씨]	ཁག་ [탁]	གུབ་མཐའ་ [툼타]	ག་ཤག་ [다씩]
ངང་སྟོང་ [당송]	ལྷན་པ་ [띤빠]	མ་རྒྱས་ [타개]	མ་སྟོ་ [타모]
བམ་ཟེ་ [담세]	ལྷ་སྟོ་ [마고]	ཁང་སྟོ་ [항뵤]	མ་མ་ [싸싸]

③ ལ་첨족자 6개

기본자의 발음을 [라]¹⁴로 변화시킨다. ལ་ [다]는 예외이다.

ལ་ [라]	ལ་ [다]				
--------	--------	--------	--------	--------	--------

예시)

ལུ་ལྷུབ་ [루툼]	ལུང་ཁང་ [룽강]	ལྷིང་ག་ [링가]	ལྷིང་སྟོ་ [렝모]
ལྷིང་གཞི་ [렝시]	ལམ་ [라마]	ལྷོ་རྒྱུང་ [로중]	ལུང་ [룽]
ལྷོ་བུག་ [롭톡]	ལྷོ་རྒྱུང་ [롭중]	ལྷོ་སྟོ་ [롬뵤]	ལྷོ་ག་ [롭]

¹⁴ 전체적으로 영어의 L 소리가 나도록 발음한다.

④ ལྔ་ཚུབ་ཚུལ་ 13ཀའ་

기본자의 발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ཀ་	ཁ་	ག་	ང་	ད་	ཅ་
[까]	[카]	[가]	[냐]	[다]	[짜]
ཇ་	ཉ་	མ་	ལ་	ཤ་	ཨ་
[차]	[샤]	[사]	[라]	[샤]	[하]

예시)

གུ་པ་ [다빠]	ཅ་ [차]	ཇ་ [차]	ཉ་མོ་ [샤모]
མ་ཁུ་ [사쿠]	ལ་ཅ་ [라쑤]	ལ་ལྷག་ [라딱]	ལ་ལྷོང་ [라땡]
ལོ་ཅ་བ་ [로짜와]	ལ་བ་ [라와]	ཨ་གང་ [하쌍]	ཨ་གས་ [학]

5) 前接字 (前接字, རྒྱུ་འདུག་)

前接字 <ག་ ད་ བ་ མ་ འ་>는 실제 발음에선 미세한 영향을 미치지만 철자표기 안에서는 따로 적용하지 않고 기본음가 그대로 표기한다. 예외로 前接字 ད་가 붙은 음절 དབ་는 [와] 발음이 난다.

예시)

ག་ - གཉེར་ [네르]	གཤེགས་ [썩]	གསུངས་ [쑤]	གསོལ་ [썰]
ད་ - དཀའ་ཐུབ་ [까툼]	དགོན་པ་ [관빠]	དག་ [다]	དངོས་པོ་ [응외뵤]

བ་ - བཀའ་ [까]	བཟོ་པ་ [소빠]	སྐྱུག་བསྐྱེལ་ [독응앨]	བརྩེ་བ་ [제와]
མ་ - མགོན་པོ་ [관뽕]	མཐུན་ལམ་ [툰람]	མཁྱེགས་པོ་ [곡뽕]	མུ་མཚོ་ [가초]
འ་ - གོ་འཕང་ [고팡]	འབྲུལ་ཤེས་ [틀쎄]	འཆང་བ་ [창와]	འདོད་པ་ [되빠]
དབ་ - དབུ་མ་ [우마]	དབང་ [왕]	དབེན་པ་ [웬빠]	དབུགས་ [옥]

6) 후접자(後接字, རྗེས་འདུག་)

후접자<ག་ང་ད་ན་བ་མ་འ་ར་ལ་ས>는 기본적으로 한글 받침에 해당하기 때문에 받침의 형태로 표기한다. **ག**는 <ㄱ>으로, **ང**는 <ㅇ>으로, **ད**는 <ㄴ>으로, **བ**는 <ㅂ>으로, **མ**는 <ㅁ>으로 표기한다. **ད**는 실제 티베터 발음에선 받침으로 발음되기도 하고 발음되지 않기도 하지만 표기의 통합을 위해서 표기법에는 음가를 적용 하지 않기로 한다.

འ와 **ས**는 받침으로서 음가를 가지지 않는다¹⁵ **ར**와 **ལ**는 기본자음으로 쓰일 경우 모두 <ㄹ>음가를 가지지만, 후접자로 쓰일 경우, **ར**는 [르]라는 단독 음가로 표기 하고, **ལ**는 기본자에 붙는 <ㄹ> 받침으로서 적용한다. (예) རྩེར་ [까르] / རྗེས་ [뿔])

¹⁵ 후접자 가운데 **ད་ ན་ ལ་ ས** 가 오면 모음에는 영향을 미친다. [아]는 [애]로, [우]는 [위]로, [오]는 [외]로 표기 한다. [이]와 [에]는 그대로 사용한다.

예시)

ག་	- ལྷག་པ་ [독빠]	འཛོག་སྐྱེམ་ [족금]	རྩོག་བཅས་ [쪽째]	བདག་ཉིད་ [닥니]
ང་	- ཚང་མ་ [창마]	ཟང་ཟིང་ [상싱]	དཔུང་པ་ [뽕빠]	སྟོང་ [퐁]
ད་	- དད་པ་ [대빠]	ཚད་མ་ [채마]	བསོད་ནམས་ ¹⁶ [쇠남]	བད་དེ [배데]
ན་	- ལྷན་མོང་ [툰몽]	དོན་དམ་ [된담]	ནོན་ [넌]	གཞན་དག་ [샌닥]
བ་	- ལྷབ་པ་ [툼빠]	རབ་རིབ་ [랍림]	བྱབ་ཡུལ་ [콧을]	འབབ་པ་ [밥빠]
མ་	- དམ་ཚིག་ [담칙]	ནམ་ཡང་ [남양]	ལམ་རིམ་ [람림]	ནམ་དག་ [남닥]
འ་	- བཀའ་འདྲི་ [까디]	མཇད་དཀའ་ [재까]	འབྱེར་བ་ [케르와]	འགྲུབ་ [툼]
ར་	- རོར་བྱ་ [노르부]	ཡང་སྐྱར་ [양까르]	སོ་སོར་བར་པ་ [쏘쏘르타르빠]	
ལ་	- འབྲུལ་བ་ [불와]	རྟེན་འབྲེལ་ [뎀뎀]	ནལ་འབྱོར་ [널조르]	སྐལ་བཟང་ [깁상]
ས་	- ཚོས་ཅན་ [최쎄]	ལས་ཀ་ [래까]	སྐས་ [쎄]	རྗེས་དཔག་ [제뻑]

7) 재접자(再接字, ཡང་འདྲུག་)

재접자 ㄱ'와 ㅅ'는 음가를 가지지 않기에 표기하지 않는다.

예시)

བསྐྱནད་པ་ [뎀빠] སེམས་ [쎄] བདགས་མིང་ [딱밍] འཕགས་པ་ [팍빠].

¹⁶ 표기 규칙에 따라 [쇠남]이라고 표기하지만 실제 발음은 [쏘남]에 가깝다.

8) 불규칙 발음 표기

변화된 발음을 표기하기로 한다.¹⁷

① 두 음절이 결합할 때 오는 불규칙 발음

- 후접자가 없는 음절은 다음에 오는 음절의 전접자 영향을 받아 발음이 변화한다.

예시)

ཁ་ལག་ [칼락]	བྱི་ལམ་ [틸람]	དགུ་བཅུ་ [굽쭈]	དགེ་སྦྱང་ [겔룽]
ཕུ་ལེ་བ་ [찰레와]	ལྷ་ལེ་ལྷ་ལེ་ [발레볼레]	སྒོ་བཟང་ [롭상]	མི་ངན་ [밍응앤]

- 후접자가 없는 음절이 다음에 오는 음절의 전접자 영향을 받아 발음이 변화할 때 불규칙적으로 변하는 경우도 있다.

예시)

མེ་མདའ་ [멘다]	དགེ་འདུན་ [겐뉰]	སྐྱེ་མདུན་ [꾼뉰]	རྟགས་འདུག་ [땡축]
--------------	----------------	-----------------	-----------------

- 앞 음절이 ʼ로 끝나고 두번째 음절의 전접자에 ʼ가 오는 경우는 앞 음절에 <ㄴ>받침이 붙는다.

예시)

བཀའ་འགྱུར་ [관규르]	མཁའ་འགྲོ་ [칸도]
------------------	----------------

¹⁷ 이 경우는 주로 음절과 음절을 부드럽게 발음하는 연성(連聲)규칙에 해당한다.

② 조사로 쓰여 단어의 끝이 한 음절로 된 **ㅁ**나 **ㅂ**로 끝나는 경우는
[와]와 [오]로 발음되기에 표기법도 이를 따른다.

예시)

ㅅㅅ [토오]

ㅅㅅ [다오]

ㄴㅅㅅ [가오]

ㅅㅅ [부와]

ㅅㅅ [다와]

ㄴㅅㅅ [레와]

ㄴㅅㅅ [리오]

ㅅㅅ [쫘오]

3. 티벳어화된 범어 표기

티벳어화된 범어는 주로 범어를 그대로 음사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범어 발음을 그대로 따라야 한다. 하지만 범어가 일단 티벳어로 음사되어 표기되고 나면 티벳어 발음 규칙에 영향을 받게 된다. 이 경우 티벳어의 발음규칙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지만, 한 음절에 여러 철자를 나열할 수 있는 티벳어의 특성상 실제 범어 발음과는 다른 불규칙적인 발음이 다양하게 발생한다. 특히 유두자나 첨족자로 올 수 있는 철자들의 경우 티벳어의 문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앞에서 살펴본 티벳어 한글 표기법과는 다른 규칙이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본 표기안에는 다음과 같은 예외 규칙을 적용하여 표기하도록 한다. 하지만 학술적 철자표기를 하는 경우에는 범어의 원어 그대로 표기할 수 있을 것이다.

1) 두 번째 음절의 유두자 위치에 있는 철자는 첫 번째 음절의 받침 역할을 한다. 꺾는 <ㄱ>음가를 지니기에 [ㄱ]으로 표기하고, ㄱ, ㄴ와 같이 한글받침의 <ㄷ>음가에 해당하는 발음은 [ㄷ]으로 표기한다. ㄴ는 <ㄴ>음가를 가지기에 [ㄴ]으로 표기한다.

2) 첨족자 ㄹ는 모음 <ㅏ>의 음가를 가진다.

क ख ग घ ङ च छ ज झ ञ

क़ ख़ ग़ घ़ ङ़ च़ छ़ ज़ झ़ ञ़

(ka) (kha) (ga) (gha) (ṅa) (tsa) (tsha) (dza) (dzha) (ṅa)
까 카 가 가 응아 짜 차 자 자 냐

ट ठ ड ढ ण त थ द ध न

ṭ ṭh ḍ ḍh ṇ t th d dh n

(ṭa) (ṭha) (ḍa) (ḍha) (ṇa) (ta) (tha) (da) (dha) (na)
따 타 다 다 나 따 타 다 다 나

प फ ब भ म य र ल ळ

प़ फ़ ब़ भ़ म़ य़ ऱ ल़ ऴ

(pa) (pha) (ba) (bha) (ma) (ya) (ra) (la) (va)
빠 파 바 바 마 야 라 라 와

श ष स ह क्ष

श़ ष़ स़ ह़ क्ष़

(śa) (ṣa) (sa) (ha) (kṣa)
샤 카 싸 하 카

अ आ इ ई उ ऊ ऋ ॠ लृ लृ ए ऐ ओ औ अं अः

अ़ आ़ इ़ ई़ उ़ ऊ़ ऋ़ ॠ़ लृ़ लृ़ ए़ ऐ़ ओ़ औ़ अं़ अः़

(a) (ā) (i) (ī) (u) (ū) (ṛ) (ṛi) (l) (l) (e) (ai) (o) (au) (am) (aḥ)
아 아 이 이 우 우 리 리 리 리 에 ऐ 오 오 암 아

예시) 이름

Amitābha : **ਅਮਿਤਾਬ੍ਹਾ** [아미따바]

Arhate : **ਅਰ੍ਹਟੇ** [아르하테]

Avalokiteśvara : **ਅਵਲੋਕਿਤੇ-ਵ੍ਹਰ**
[아와로끼떼쏘라]

Bhagavate : **ਭਗਵਟੇ** [바가와테]

Bodhisattva : **ਬੋਠਿ-ਸਠ੍ਹਾ** [보디삿또]

Buddha : **ਬੁਠ੍ਹਾ** [붓다]

Dharma : **ਠ੍ਹਮ** [다르마]

Dharmakīrti : **ਠ੍ਹਮ-ਕੀ-ਰਿ** [다르마끼리띠]

Dharmapāla : **ਠ੍ਹਮ-ਪਾਲ** [다르마팔라]

Gautama : **ਗੋਟਮ** [고땀]

Heruka : **ਹੇਰੁਕਾ** [헤루까]

Jinamitra : **ਜਿਨਮਿਤ੍ਰ** [지나미따]

Kamalaśīla : **ਕਮਲਾਸ਼ਿਲਾ** [까말라썰라]

Kaniṣka : **ਕਨਿਸ਼ਕ** [까니까]

Maitreya : **ਮੈਤ੍ਰਿਯ** [메띠야]

Mañjuśrīye kumārabhūta : **ਮਞ੍ਜੂਸ਼੍ਰਿਯੇ-ਕੁਮਾਰਭੂਟਾ**
[만주씨리에 구마라부따]

Padmasambhava : **ਪਦਮਸੰਭਵ**
[빠드마쌘바바]

Pandit : **ਪੰਡਿਟ** [뻘디따]

Prakaraṇa : **ਪ੍ਰਕਾਰਣ** [따까라나]

Ratnarakṣīta : **ਰਣਨਰਕਸ਼ਿਟ** [랏나라키따]

Śakuni : **ਸ਼ਕੁਨਿ** [싸꾸니]

Śākyamuni : **ਸ਼ਾਕ੍ਯਮੁਨਿ** [싸까무니]

Śakyaśrī : **ਸ਼ਾਕ੍ਯਸ਼੍ਰੀ** [싸까씨르]

Samgha : **ਸੰਘ** [쌍가]

Samyaksambuddha : **ਸਮ੍ਯਕਸੰਭੁਠ੍ਹਾ**
[쌘약쌘붓다]

Sāri-putra : **ਸ਼ਾਰੀਪੁਤ੍ਰ** [샤리부]

Surūpa : **ਸੁਰੂਪ** [수루빠]

Tathāgata : **ਤਠ੍ਹਾਗਟ** [따타가따]

Tikā : **ਟਿਕਾ** [띠까]

Vairocana : **ਵੈਰੋਚਨ** [베로짜나]

예시) 지명

Asmaka : ཨ་སྐྱ་ཀ་	[애마까]	Gayā : ག་ཡ་	[가야]
Gāyadhara : ག་ཡ་རྩ་ར་	[가야다라]	Kaliṅga : ཀ་ལིང་ག་	[갈링가]
Kosala : ཀོ་ས་ལ་	[꼬살라]	Kuśa : ཀུ་ཤ་	[꾸샤]
Magadha : མ་ག་རྩ་	[마가다]	Nālandā / Nalendra : རྡ་ལེནྲ་	[날렌다]

예시) 진언

Oṃ maṇi padme hūṃ : ཨོཾ་མ་ཎི་པ་རྗེ་རྩྱུ། [옴마니뵈메흠]

Oṃ vāgīśvari muṃ : ཨོཾ་བླ་གྱི་ཤུ་རི་མུ། [옴와기샤리뽀뽀]

Oṃ vajrapāṇi hūṃ : ཨོཾ་བ་རྩ་¹⁸ལྷ་མི་རྩྱུ། [옴밴자빠니흠]

Oṃ arapacana dhīḥ : ཨོཾ་ཨ་ར་པ་ཙ་ན་རྩྱུ། [옴아라빠짜나디]

Oṃ tāre tuttāre ture svāhā : ཨོཾ་རཱེ་རཱེ་རཱེ་སཱུ་ཏཱ། [옴따레뽀따레뚜레쏘하]

Tadyathā Oṃ gate gate pāragate pārasaṃgate bodhi svāhā

ཏཱདཱཏཱ་ ཨོཾ་གཏེ་གཏེ། བཱརགཏེ། བཱརསྐགཏེ་བོདྷི་སཱུ་ཏཱ།

[때야타] [옴가떼가떼] [빠라가떼] [빠라쌈가떼보디쏘하]

¹⁸ 불규칙 발음으로 [밴자]로 표기한다.

བྱང་ལྷུ་ལོད་ [장춍외]

ལྷ་ཚེན་དགོངས་པ་རབ་གསལ་ [라첸공빠랍썰]

འབྲོ་བྱི་སྐྱམ་རྗེ་ [도티쑤제]

འབྲོ་མ་སྣོན་རྒྱལ་བའི་འབྲུང་གནས་
[돛뵈겔와중내]

མང་སྲོང་མང་བཙན་ [망송망쨌]

མི་ཉི་པ་ [미띠빠]

མུ་མི་བཙན་པོ་ [무니쨌뵈]

དམར་བྱུ་ཡེ་ཤེས་ [마르샤까예쑤]

གཙང་རབ་གསལ་ [짱랍썰]

འོ་ལྷུ་སྐྱུ་རྒྱལ་ [오데뿌겔]

ཡིད་བཞིན་ཚོར་བ་ [이신노르부]

ཡེ་ཤེས་འོད་ [예쑤외]

གཡོ་དག་ལྷུང་ [요게쑤]

རིན་ཚེན་བཟང་པོ་ [린첸상뵈]

ལོ་ཙྰ་བ་ [로짜와]

ཤེས་རབ་སེང་གེ་ [쑤랍쑤게]

སེང་གེ་རྣམ་རྒྱལ་ [쑤게남겔]

བསོད་ནམས་རྒྱ་མཚོ་ [쇠남가초]

ཨ་ཉི་པ་ [아띠샤]

བྱན་ཀ་དཔལ་ཡོན་ [댄까뵈온]

ལྷོ་ཚེན་རིན་ཚེན་བཟང་པོ་ [로첸린첸상뵈]

འབྲོ་ག་མི་ [독미]

འབྲོ་མ་སྣོན་པ་ [돛뵈빠]

མར་པ་ [마르빠]

མི་ལ་རས་པ་ [밀라래빠]

མུན་ཉིང་དེ་འཛོན་ [넌뵈응에진]

ཙོང་ཁ་པ་ [쑤카빠]

ཚེ་སྲོང་བཟའ་ [체뵈사]

འོད་སྐྱུང་ [외쑤]

ཡེ་ཤེས་རྗེ་ [예쑤데]

ཡོན་ཏན་རྒྱ་མཚོ་ [온뵈갸초]

རལ་པ་ཙན་ [랄빠쨌]

ལོ་ལྷུང་གྲགས་འབྲུར་ཤེས་རབ་
[로쑤닥조르쑤랍]

ལྷོ་ལ་མཇུ་ [쑤라만주]

སི་ཏུ་ [씨뚜]

སྲོང་བཙན་རྣམ་པོ་ [송쨌감뵈]

ལྷ་ཐོ་ཐོ་མི་གཉན་བཙན་ [하토토리넌쨌]

2) 보통 이름

བཀྲ་ཤིས་ [따씨]	སྐལ་བཟང་ [깁상]	ཀྱ་མཚོ་ [가초]
སྟོལ་དཀར་ [뿔까르]	སྟོལ་མ་ [뿔마]	ངག་དབང་ [음악왕]
འཛིགས་མེད་ [직메]	ཉི་མ་ [니마]	བསྐྱེན་འཛིན་ [뎨진]
ཐུབ་བསྐྱེན་ [툽뎨]	དོན་གྲུབ་ [뎨툽]	བདེ་སྦྱིད་ [데끼]
དོ་རྩེ་ [도제]	ནམ་གུལ་ [남갈]	པད་མ་ [배마]
དཔལ་ལྷན་ [뽈댄]	འཕྲིན་ལས་ [틴래]	སྟོ་བཟང་ [툽상]
ཚེ་རིང་ [체링]	ཟླ་བ་ [다와]	བསོད་ནམས་ [쇠남]

3) 소임명

སྐུ་གཉེར་ [꾸네르]	མཁན་པོ་ [칸뽕]	དགེ་སྟོན་ [게꼬]
ཚབ་རིལ་ [참릴]	གཉེར་པ་ [네르빠]	ཕྱག་མཛོད་ [착죄]
ཟམ་དབུ་མཛོད་ [라마우재]	དབུ་མཛོད་ [우재]	

4) 학위명

སྟོང་བསྐྱེད་དགེ་བཤེས་	[링세게세]
དགེ་བཤེས་རྒྱལ་ལས་རམས་པ་	[게세음악람빠]
དགེ་བཤེས་ཚོགས་རམས་པ་	[게세축람빠]
དགེ་བཤེས་རྩ་རམས་པ་	[게세하람빠]
དགེ་བཤེས་མདོ་རམས་པ་	[게세도람빠]

5) 종파

가람'바'라'크'르' [까르마까규]

바'라'크'르' [까규빠]

바'라'가'다'람'사'가'다'람'사'다'가' [까담담응악빠]

바'라'가'다'람'사' [까담빠]

바'라'가'다'람'사'쉰'다' [까담닝마]

바'라'가'다'람'사'에'다'가' [까담메응악빠]

바'라'가'다'람'사'가'르'다' [까담숭빠와]

바'라'가'다'람'사'가'사'다' [까담싸르마]

시'우'바'라'크'르' [토후까규]

다'고'우'가'사' [겔룩빠]

오'다' [응오르빠]

오'다' [조낭와]

쉰'다' [닝마빠]

라'가'우'다'바'라'크'르' [딱룽까규]

다'가'사'비'바'라'크'르' [닥보까규]

다'가'우'바'라'크'르' [팍두까규]

우'가'해'다' [착첸빠]

우'우'가'사' [부룩빠]

다'다'오'다'바'라'크'르' [바름까규]

다'다'구'다'바'라'크'르' [디궁까규]

다'우'가'다'바'라'크'르' [독빠까규]

해'다'다'바'라'크'르' [첼빠까규]

오'가'사'해'다' [족첸빠]

오'다' [종와]

라'우'다' [샬루빠]

시'제'다' [시제빠]

가'라'다'다'다'바'라'크'르' [야상까규]

다'다'다'다'바'라'크'르' [쌍빠까규]

사'크'르' [싸까]

가'사'다' [싸르마]

6) 지명

ཀཏ་མན་ཏུ་ [까뜨만뚜], (까뜨만두)	ཁམས་ [캄]
གར་ལོག་ [가르록]	གུ་གེ་ [구계]
མངའ་རིས་ [응아리]	ཆབ་མདོ་ [참도]
ཚུ་མིག་ལུང་ [추막릉]	མཆིམས་བུ་ [침부]
རྫོ་ཁང་ [조캉]	ལྗངས་ [장]
མཉེས་ཐང་ [네탕]	ལྷོད་ [뫼]
རྩི་ལི་ [딜리](델리)	མདོ་ཁམས་ [도캄]
མདོ་སྐྱང་ [도매]	རྟ་རམ་ས་ལ་ [다람살라] (다람살라)
བྱང་ཐང་ [장탕]	བྲག་ཡེར་པ་ [닥예르빠]
དབུས་ [위]	དབུས་གཙང་ [위짱]
གཙང་ [짱]	ཞང་ཞུང་ [상슝]
གཞིས་ཀ་ཚེ་ [시까제]	ཡར་ལྷུང་ [야르릉]
རུ་སྐྱང་ [라뎡]	རི་བོ་དགའ་ལྗན་ [리오간댄]
ལ་དུགས་ [라닥]	བསམ་གྲུབ་ཚེ་ [쌤듭제]
བསམ་ཡས་ [쌤애]	ལྷ་ལུང་ [하릉]
ལྷ་ས་ [하싸](라싸)	ཨ་མདོ་ [암도]

7) 고유명사

བཀྲ་ཤིས་ལྷན་པོ་	[따씨훤보]	ཁ་བཏགས་	[카딱]
ཁམས་ཚན་	[캄찬]	གྲུབ་མཐའ་	[둑타]
གྲ་ཚང་	[다창]	དགའ་ལྡན་	[간댄]
རྒྱུད་སྐྱད་	[규매]	བཅོམ་ལྡན་འདས་	[쫂댄대]
བསྐྱན་འགྲུར་	[뎌규르]	དན་ཏིག་ཤེལ་གྱི་ཡང་དགོན་	[댄떡썰기양관]
བརྩམ་གྲ་	[뒤다]	བོན་	[뵤]
འབྲས་སྦྲངས་	[대뽕]	ཟླ་མ་	[라마]
དབུ་ཅན་	[우짠]	དབུ་མེད་	[우메]
མི་ཚན་	[미찬]	ཚོད་པ་	[찌빠]
ཚོགས་མཚོད་	[족최]	རིན་པོ་ཆེ་	[린보체]
སུམ་རུ་པ་	[숨쭈빠]	སེ་ར་	[세라]

ལྷན་གྲོལ་ཞི་བའི་རྒྱ་མཚོ་རོ་གཅིག་དུ།

ལག་ཞོལ་བའི་མཐའ་ཡས་ཚོས་ཚུལ་དལ་འབབ་སྐྱང་།

ཚིག་གི་གཞེགས་མ་རེས་ཀྱང་དུག་གསུམ་གྱི།

དྲི་མ་ཡོངས་འབྱུང་ལེགས་བཤད་བདུད་ཅི་འདི།

འདམར་དུ་བསྐྱུན་པའི་རྣམ་དཀར་ཕུང་པོའི་མཐུས།

ཡང་དག་ཚོས་ཀྱི་སྒོ་མོ་སྒོང་ཕྱག་བརྒྱ།

ལག་དངས་ཉེ་རྒྱུད་ལྗེའི་འགོ་བ་མ་ལུས་པ།

འཇམ་ལེགས་ཉེར་བུའི་མཛོད་ལ་དབང་འབྱོར་ཤོག།

ཅས་དགེ་བཅོམ་སྒོར་ཚིག་འདི་བཞིན་ལྷོ་ཉེར་གོང་ས་སྐྱབས་མགོན་ཆེན་པོ་མཚོག་གིས་མཛད་པའོ།

증득해탈(證得解脫)의 적멸의 바다가 한 맛(一味)으로
 어우러져 한 없는 법의 방식을 이어 온 강물,
 어구(語句)의 사소한 부분마저도 삼독(三毒)의
 때를 완전히 씻어주는 선설(善說)의 이 감로를,
 출판하여 생긴 순백의 공덕을 쌓은 힘으로
 수천억 개의 바른 법(正法)의 문이,
 활짝 열려 육도(五道)의 중생들이 남김없이
 해탈(決定善)의 보고(寶庫)에서 주인이 되게 하소서.

후원해주신 분들

강정실님	다보화님	송하윤님	정재현님
경봉스님	대덕심님	신은희님	정정희님
권남수님	대운심님	신현아님	정토화님
기유형님	도은스님	안병남님	정형미님
김나영님	무구스님	엄양자님	조일환님
김명균님	무애지님	연화심님	진량스님
김명숙님	박경원님	원담스님	최미향님
김명준님	박미향님	원영주님	최설희님
김미미님	박성관님	윤보라님	최소아님
김복구님	박성범님	윤정화님	최재형님
김삼순님	박성숙님	이경진님	최종춘님
김선이님	박성용님	이리라님	하 모 님
김영희님	박성욱님	이미화님	함 월 사
김유리님	박춘삼님	이상만님	현도스님
김윤미님	방주연님	이영지님	현민석님
김은덕님	배옥이님	이은미님	현윤석님
김자년님	보림선님	이은주님	현재호님
김종중님	비화심님	이인형님	현한석님
김지연님	빌 리 님	이진욱님	혜덕스님
김지환님	상견지님	이철현님	혜문심님
김태종님	성호스님	이총희님	황수자님
김현경님	세원전설	이형훈님	
김현정님	손명희님	이화자님	
김현지님	손민국님	인경스님	
김혜정님	손지영님	장주옥님	
김화자님	손혜영님	전연순님	
김희진님	손혜진님	정영자님	
깨플모임	송정우님	정윤주님	

<후원금을 모읍니다>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티벳장경연구소의

후원자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은행의 자동이체 방식을 통해 정기적으로

매달 1만원 또는 그 이상의 후원금을 보내주셔도 되고,

무통장입금을 통해 부정기적으로 후원하실 수도 있습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은

티벳 대장경의 번역과 티벳총서 발간을 위한 원고료,

티벳어 교육을 위한 강사료,

연구소 도서실에 비치할 도서 구입비, 연구인력의 해외연수 비용,

국내외 학술대회 개최비 등으로 사용됩니다.

큰 뜻과 정성으로 보내주신 소중한 후원금으로

티벳과 한국의 불교와 문화를 잇는

튼실한 가교를 놓겠습니다.

소 장 : 김 성 철
연구초빙교수 : 땀진 남카
전문연구원 : 최 연 철
객원연구원 : 씨남 겔첸
객원연구원 : 양 승 규
객원연구원 : 박 은 정
연구 조 교 : 강 남 옥
연구 조 교 : 대 연

우) 780-714 / 경상북도 경주시 석장동 707 동국대학교 티벳장경연구소
전화: 054) 770-2893 / 팩스: 054) 780-2894 / E-mail: tibet@dongguk.ac.kr

<후원금 보내는 방법>

티벳장경연구소 홈페이지(www.kreatibet.kr)의 '모금' 메뉴

우측에 링크되어 있는 약정서를 다운 받아 작성하신 후

이메일(tibet@dongguk.ac.kr)로 보내주셔도 되고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대외협력단 발전협력실로

보내주셔도 되고 전화를 주셔도 됩니다.

소득세 연말정산시에 후원금에 대한

감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후원문의 전화>

054) 770-2100, 2200 / 동국대 경주캠퍼스 대외협력단 발전협력실

054) 770-2893 / 동국대 경주캠퍼스 티벳장경연구소

<후원금 보내실 은행 계좌>

신한은행 140-007-712123

예금주: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송금한 후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소득공제용 기부금 납입증명서 신청하는 곳>

054) 770-2100, 2200 / 동국대 경주캠퍼스 대외협력단 발전협력실



༄༅། ལྷོ་རྒྱུ་བཀའ་བསྟན་ཉམས་ཞིབ་བསྐྱེ་གནས་ཁང་།།

티벳장경연구소

The Research Center for Tibetan Buddhist Canon

발행일 2010년 6월 8일
발행처 티벳장경연구소
표지디자인 김종현
(우) 780 - 714
경상북도 경주시 석장동 707번지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티벳장경연구소
☎ 054) 770 - 2893
Fax 054) 770 - 2894
Homepage www.koreatibet.kr
E - m a i l tibet@dongguk.ac.kr
